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4>

학승이 물었다. "바로 눈앞에 직면한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바로 직면한 사나이야."

問 觀面事如何 / 師云 你是觀面漢

눈앞에 직면한 일은 바로 닦친 일이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눈앞의 일'이다. 사람이 사는 데 무엇이 바로 직면한 일일까? 조주 스님은 그것은 '바로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선(禪)은 비유로 세상을 설명한다. 직면사를 멀리 찾을 필요 없다.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오로지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가 무엇이 필요 한지, 그에게 어떤 조건과 행동이 적합한지 생각 할 뿐이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직면사이다.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직면사이다.

인생의 의미를 멀리 보지 마라.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직면사이다. 평소 어떻게 대하고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떤 행동을 보여야 자식이 장차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직면사를 잃고 그때그때 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후회할들 무엇 할 것인가. 현재 직면한 일이 그대의 인생이고 도(道)이다. 그 직면사를 똑바로 보고 소홀히 하지 마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가 지향하여 가는 길을 가는 사람"

인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발걸음이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야."

問 如何是佛向上人 / 師云 只者牽耕牛底是

향상인(向上人)이라는 말은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향상인(佛向上人)이라 하면 부처가 지향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을 뜻한다.

발을 가는 농부는 묵묵히 밭을 갈 뿐이다. 장차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다만 묵묵히 농부의 길을 간다. 가끔 그 일이 즐거워 노래도 하고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추기도 하지만 그 모두 자연의 오묘함에 감동된 사람만이 자기를 버리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부처가 지향하여 가는 길도 농부의 길과 같다. 사람의 마음 밭을 갈고 가꾸는 것은 장차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는 중생의 마음 밭을 묵묵히 간다. 생각해 보라. 마음을 빼 놓고 어찌 지구의 평화를 논하겠는가. 지구를 구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한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요원하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부처님을 받드는 농부에 비유한 것이다. "이더, 이더, 어~하~ 위워!"

학승이 물었다. "다급한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것처럼 물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말하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최고로 빨리 신발을 신고 물위에서 말을 달리고 서울 장안에 도착해도 신발 끝조차 젖지 않는 거야."

問 如何是急 / 師云 老僧與麼道 你作麼生 / 云 不會 / 師云 向你道 急急著靴水上立 走馬到長安 靴頭猶未濕

앞에서 나온 '직면사'에 대한 것은 눈앞에 닦친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여기서 말하는 '급하다'는 것은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가 강한 문답이다.

조주 스님이 "최고로 빨리 신발을 신고 물위로 말을 달려 서울 장안에 도착해도 신발 끝조차 젖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도 얼마나 빠르지 못할까 신발을 젖게 하는 시간보다도 더 빠르게 장안에 도착해 신발 끝도 젖지 않을 정도로 신속한 것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 '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오른 발을 내딛고 오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왼 발을 내딛어 달릴 정도로 바빠다'는 말과 같다. 이 정도 되어야 그것을 가히 급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도의 급한 일이 무엇일까?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너 자신을 아는 거야." 무불선원 선원장

# 눈앞의 일부터 해라

# 불제자가 지켜야할 생활지침서

<선가귀감>은 <선가귀감>이라고도 받들었다. 내용은 그 제목처럼 선가(禪家) 나아가서 불가(佛家) 전체의 승려들 및 초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지켜야 할 생활지침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청허휴정이 40대 중반에 <선가귀감>을 저술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의 서문에 나타나 있다. 곧 불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근본을 망각하고 세간법에 빠져 있음을 한탄해 그 폐해로부터 구제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방대한 경전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한 수백 마디를 간추려서 짧은 용어에 기록했기 때문에 간략하지만 뜻은 깊기 때문에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서 깊이 공부해 묘용을 터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곧 출가한 남자가 지녀야 하는 본분과 수행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를 말한 지침서이고 강요이며 개론서이다. 때문에 그 형태는 각종 경론과 어록에서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힘써야 할 내용을 발췌하여 엮은 내용에다가 청허휴정 자신이 개인적인 해설과 계승의 형태를 빌려 평석을 가한 것이다. 그런 만큼 본문에서는 지상한 타이름과 투철한 각오를 지닐 것도 함께 부탁하고 있다.

전체의 내용은 대략 분류하면 9 가지 주제 가운데 첫째는 본분(本分)과 신훈(新薰)이다. 본분은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입장이란 신훈은 후천적으로 성취되는 결과를 말한다. 본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일물(一物) 곧 깨짐이나 진여나 열반과 같이 언설과 개념을 초월한 그것은 본래부터 뚜렷하고 신령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으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일상의 중생의 입장으로 보면 슬한 번뇌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부득불 그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곧 신훈에 해당한다.

둘째는 선교의 차별이다. 참선자는 교학을 익혀야 하고 교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는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불교의 선수행 가운데 12세기 송나라 시대에 출현한 소위 관화선(看話禪)이란 화두를 통해 깨침에 이르는 방식이다. 그 수행방법을 곧 화두를 참구한다 내지 화두를 든다고 말한다. 이리하여 화두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무슨 화두를 들어야 하는가, 화두를 무엇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넷째는 수행하는 신해(信解)의 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고 망념과 욕심을 버리며 집착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섯째는 수행과 깨침[修證]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곧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삼매에 들어야 할 것

을 말한다. 때문에 "음란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참선하는 것은 마치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살생의 마음을 지니고 참선하는 것은 귀를 막고 소리를 높이는 것과 같으며, 도독질하는 마음을 지니고 참선하는 것은 깨진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는 것과 같으며, 속이는 마음을 지니고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이런즉 설명 지혜가 많더라도 그것은 모두 장애만 될 뿐이다"고 말한다.

여섯째는 갖가지 수행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선수행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남에게 재물과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보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다스리는 인욕, 주문을 암송해 지혜를 터득하는 주력수행, 절수행을 통해 겸손과 공경의 정신을 배우는 예배수행, 부처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정도에 왕생하고자 하는 염불수행, 온갖 지혜를 터득하도록 해주는 경전에 대한 공부 등을 결 단하여 할 것을 설명한다.

일곱째는 출가의 정신에 대해 설명한다. 출가자의 본분으로서 "출가정신은 일신의 안일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등 따듯하고 배 부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生死) 곧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를 제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 제도의 정신을 잊고, 자신이 중생이 것들일 살고 있는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를 벗어나서 삼계에 빠져 있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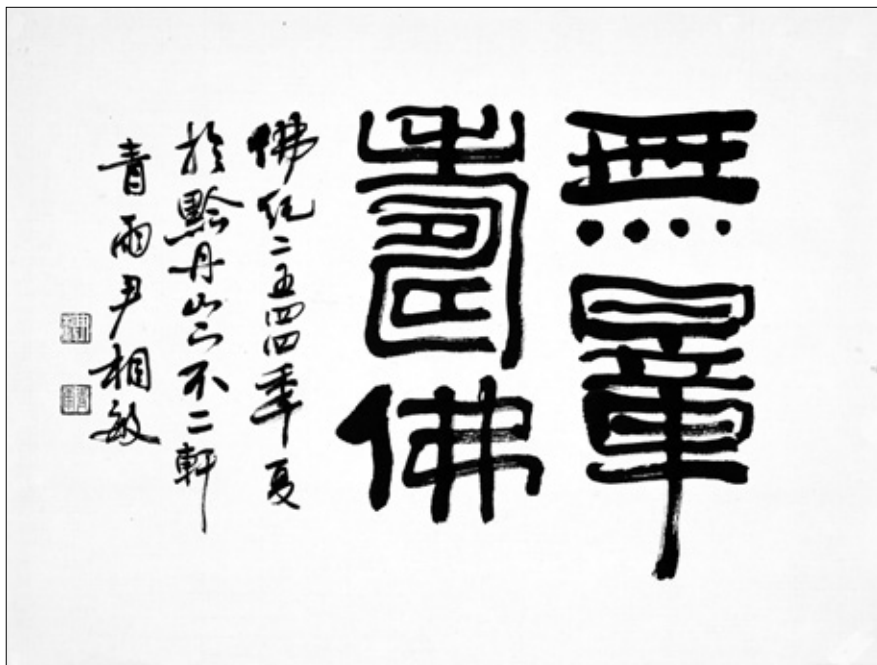
여덟째는 출가자의 신분이란 최소한도 선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해 선종의 오가에 대해 설명한다. 선종의 오가는 당나라 시대에 형성된 선종의 대표적인 다섯 분과 곧 임제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청허휴정의 법맥은 임제종에 속한다.

아홉째는 선수행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무집착(無執着)과 무분별(無分別)에 대해 설명한다. 자신과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도 집착을 버리고 이것저것을 따지는 분별심을 내지 말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선가귀감>은 특별히 참구에 힘쓰는 남자들은 물론이고 불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불교 특히 선법의 이해를 위한 좋은 길잡이의 역할이 되고 있다. 후반부의 선종오가에 대한 교의 및 법맥의 이해는 조선중기 당시의 법계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는 임제종의 정통을 계승해 온 자부심과 더불어 교학에 대한 일종의 선법 우월의식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희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 운상민의 서화산책 12 무량수불(無量壽佛)



## 무량수불

무량수불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대승불교의 부처 가운데 가장 널리 신봉되는 부처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명의 한이 없는 부처님의 덕을 찬양해 무량수불이라 일컬어진다.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와 함께 병행해 사용되며 미타(彌陀)·무량불·무량광불이라고도 한다. 이 작품은 인전(印象; 도장세기기 위한 전서)을 쓴 작품으로 량(量)과 수(壽)를 강조해 길게 표현함으로써 대각선구도를 이루게 해 변화와 안정감을 주고 있다.

정어불수무  
우검기불량  
유단이  
상산오  
불사  
이년  
한하

량 : 헤아릴 량  
壽 : 목숨 수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법화종현(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현)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 강 의

목·금·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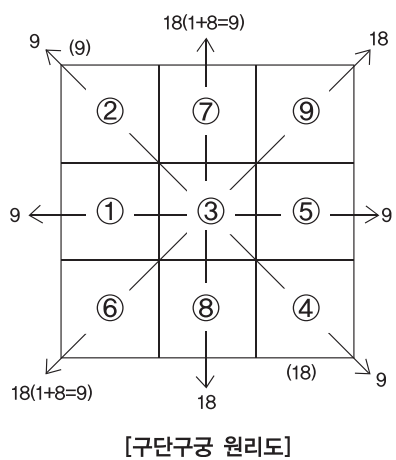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 강의 일정표 \*\*\*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강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구단구궁 원리도]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법사학	대 학 원 과 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6개월]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지경 · 천수경 · 금강경	포 교 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정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문화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종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온 중사영만 점안의식 ·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 수,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찰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요결	풍 수 지 리 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 리 심 리 상담 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토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0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피명문 · 오지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금,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개론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